

# 목활자와 한글활자

독서의 풍속사 — 6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태조 때 조선 최초의 목활자가 조성됐지만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목활자를 조성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국가에서 목활자를 조성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다. 그러나 목활자 인쇄는 대부분 지방의 관청이나 서원에 의해 주도됐다. 한글이 발명되고 한글활자가 조성됐지만 이는 보조활자에 불과했다. 한글서적도 거의 인쇄되지 않았는데, 국가가 인쇄한 한글서적은 중세적 도덕을 강요하는 것들뿐이다.**

지난 호에 금속활자에 대해서 언급했으니, 생각난 김에 목활자와 한글활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보자. 조선시대에 책을 인쇄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금속활자와 목활자, 목판본이다.

목활자 인쇄의 비중은 조선전기 인쇄출판사에서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금속활자의 제작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의 독점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에는 그것을 대체할 값싼 목활자가 유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속활자에 비해 목활자에 대한 정보의 양은 아주 부족한 상태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목활자 인쇄에 대해 뭐라 단언할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다.

## 목활자 인쇄는 지방 관청과 서원이 주도해

조선시대 최초의 목활자로는 조선 태조 4년에서 찬이 찍어 서적원(書籍院)에 바쳤던 목활자, 그리고 태조 4년에서 6년 사이 공신록권을 찍었던 목활자가 있다. 이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목활자를 조성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물론 번역 불경의 한글을 인쇄하기 위해 한글목활자가 조성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거의 예외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목활자를 조성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다. 전쟁으로 금속활자가 망실되자 훈련도감에서 목활자를 조성해서 책을 인쇄해 민간에 팔았던 것이다. 그리고 실록을 찍기 위한 활자도 목활자로 조성됐다. 이상의 사례로 보아 목활자는 국가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목활자는 주로 지방의 관청과 기관과 서원이 주로 소유했으며, 간혹 개인도 목활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김두종의 《한국고인쇄기술사》에 따르면 목활자로 찍은 책이 남아 있는 것은 대개 종종·명

중·선조 연간의 서적들이다. 목활자를 소유했던 곳, 또는 목활자로 책을 찍었던 곳으로는 경주(慶州) 경저(京邸), 경상도 감영, 평안도 평양, 전라도 금산(錦山)·남원(南原), 명곡서원(鳴谷書院), 노강서원(盧江書院) 등을 들 수 있다. 대개 관아나 서원 등에서 목활자를 소유했던 것이다. 개인이 목활자를 소유한 흔적도 있다. 예컨대 정사룡(鄭士龍)의 문집인 《호음잡고(湖陰雜藁)》는 목활자로 인쇄한 것인데, 현재 다른 인쇄본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이 책을 찍은 활자가 정사룡 개인의 소유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좀더 확실한 예는 박승임(朴承任, 1517~1586)의 경우다. 박승임은 자기 소유의 목활자 4, 5퇴를 이용해 《풍소선(風騷選)》이란 책을 찍고 있다. 조선전기의 목활자로 찍은 책의 종수는 얼마 되지 않아 출판된 서적의 성격 전체를 논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반사회의 독서물로 필요했던 문학서·역사서가 주종을 이뤘다고 미뤄 짐작할 정도인 것이다.

조선전기 목활자에서 흥미로운 것은 금속활자의 글자체를 모방한 활자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종이 《한국고인쇄기술사》에서 소개한 ‘방을해자(倣乙亥字)’ ‘방갑진자’ ‘방병자자’ ‘방을유자’가 그것인데, 이것들은 금속활자의 활자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금속활자가 목활자의 제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에서 금속활자를 제조할 만한 능력이 없고, 금속활자가 내는 효과를 얻고자 할 때 국가에서 만든 금속활자를 모방해 목활자를 제작하는 것이 널리 유행했던 것이다.

목활자는 인쇄의 효과가 금속활자에 비해 떨어지고 책이 간행된 뒤에는 해판(解版)해버리기 때문에 추가 인쇄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목판에 비해 열등하지만, 금속활자에 비해 활자의 제작이 간편하고(즉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금속활자의 이점인 다종의 책을 신속히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목활자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조선전기 목활자 인쇄본은 실제로 남아 있는 서적이 매우 적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금속활자는 국가의 소유고 교서관이란 기관이 전담해 관리하지만, 목활자의 경우는 개인이나 지방관아의 소유일 경우 관리의 능력이 훨씬 떨어져 흩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목활자 인쇄는 임병양란 이전에는 인쇄출판사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목활자 인쇄가 그 사용의 영역을 확장한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며, 주로 영정조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 조선시대 한글로 인쇄된 서적 거의 없어

이제 한글활자가 남았다. 세종 때 한글의 발명과 금속활자의 개량, 그리고 그것의 폭발적인 사용은 인쇄와 출판의 역사에 모종의 거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상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표음문자와 금속활자의 관계는 지식의 확대, 보급이라는 것을 가능케 할 만한 짝이 아닌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훈민정음과 한글이라는 표음문자의 발명과 금속활자는 애초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후에도 서로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한글이란 문자는 민중에게 읽고 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이 한글 서적의 대량 출판과 그 결과로서 독서인구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글로 인쇄된 서적은 몇몇 종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는 금속활자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자활자였지 한글활자는 아니었다.

물론 한글활자는 제작됐다. 다음이 그 실제 예다. 연도는 활자의 제작연도고, 책이름은 이 활자가 쓰인 책이다.

월인석보(月印釋譜) 한글자(동활자)

1447년(세종29), 《월인석보》《월인천강지곡》

동국정운(東國正韻) 한글자(목활자)

1447년(세종29), 《동국정운》

홍문정운(洪武正韻) 한글자(목활자)

1455년(단종3), 《홍문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능엄(楞嚴) 한글자(동활자)

1461년(세조7), 《능엄경언해》

을유(乙酉) 한글자(동활자)

1465년(세조11), 《원각경(圓覺經)》《벽암록(碧巖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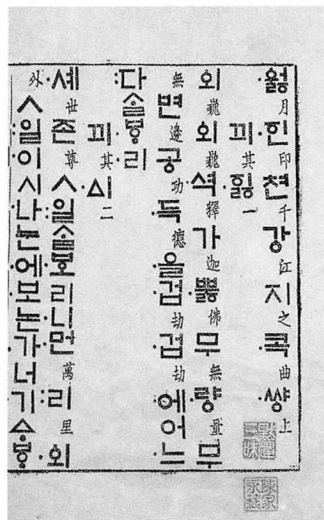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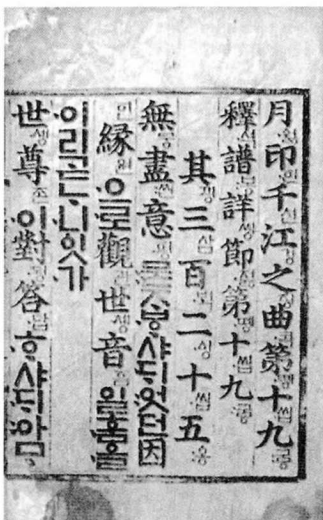
인경(印經) 한글자(목활자)

1495~1496(연산1·2), 《법보단경(法寶壇經)》《진언권공(眞言勸供)》

경서(經書) 한글자(동활자)

선조 연간, 《대학언해》《중용언해》 등

이상이 조선전기에 제작된 한글활자다. 그런데 위의 한글활자들은 한글활자로 독립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한자활자를 보조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예컨대 '월인석보한글자'는 초주갑인자(初鑄甲



조선전기에 제작된 한글활자는 한자활자를 보조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사진은 1447년에 한글자로 인쇄된 《월인석보》(왼쪽)와 《월인천강지곡》.

“한글의 발명 역시 민족의 위대한 자랑거리다. 이 민중 문자의 탄생은 정녕 위대한 것이었지만, 그 사용의 역사는 실로 초라하다. 이 문자의 탄생으로 인해 민간에서 활자를 만들어 읽을거리를 보급한 흔적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없다. 있다면 《삼강행실도》처럼 민중에게 중세적 도덕을 강요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극소수의 관찬 서적이 있을 뿐이었다. 조선후기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寅字)로 인쇄할 때 한글표기, 곧 언해(諺解)를 부기할 필요가 있게 되자 따로 조성한 활자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활자에도 공히 적용된다. '동국정운한글자'는 동국정운자에, '홍무정운한글자'는 홍무정운자에, '능엄한글자'는 강희안자(姜希顔字)에, 을유한글자는 '정란종자' (鄭蘭宗字)에 부속된 것이며, '경서한글자'도 경서의 언해를 찍었던 을해자를 모방한 경서자(經書字)에 부속된 것이다. 남은 인경한글자 역시 목활자로 주조한 '인경자'에 부속된 것이었다.

또 위의 책들은 모두 언해본인데, 이때의 언해란 한문을 먼저 쓰고 난 뒤에 직역인 국문을 부기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만약 이 언해본에서 한문을 삭제하고 순수한 한글만으로 표기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아듣기란 실로 어려웠을 것이다. 요컨대 이상 6종의 한글활자는 국문만으로 씌어진 책의 인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위의 한글활자가 다른 한글책의 제작에 사용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언해본 인쇄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졌을 뿐인 것이다.

중세적 도덕 강요하기 위한 한글서적 많아

한글의 발명 역시 민족의 위대한 자랑거리다. 한글을 운위하는 사람은 그것이 애당초 면밀한 계획 아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고 한다. 나는 여기까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민중문자의 구실은 무엇이었던가? 이 민중문자의 탄생은 정녕 위대한 것이었지만, 그 사용의 역사는 실로 초라하다. 이 문자의 탄생으로 인해 민간에서 활자를 만들어 읽을거리를 보급한 흔적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없다. 있다면 《삼강행실도》처럼 민중에게 중세적 도덕을 강요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극소수의 관찬 서적이 있을 뿐이었다. 조선후기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이른바 방각본이라는 조악한 국문소설만이 민중의 독서물이 됐을 뿐이었다.

요컨대 한글의 창제와 금속활자는 조선전기의 거창한 문화적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국문서적의 인쇄, 출판 그리고 민중에 대한 지식의 보급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목청을 높이기 전에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